

조선조 中人계층의 문학예술 집대성

「이조후기여항문학총서」 전10권 완간

“미치광이로 지내겠노라 근엄한 것은 그만두고 / 다만 이름을 감추고 술집에서 죽겠노라 / 아이가 태어나면 우는 까닭을 그대는 아는가 / 한번 인간에 떨어지면 만 가지 시름이 있는 것을.”

이는 보들레르나 랭보, 비유의 시구절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주받은 시인의 계보를 ‘굳이’ 따져 들어가자면 최치원, 김시습 등으로 끊어질 듯 가느다랗게 이어지다가 ‘閔巷詩人’의 시대에 이르러 한 무더기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위 시의 지은이는 정지윤(1808~58). 생업은 돌보지 않고 과격적인 행동을 일삼아 민간전승에서는 평양의 김선달, 경주의 정만서와 같은 등급의 건달로 취급되던 시인이었다. 이 여항(里巷·閔井 혹은 委巷이라고도 쓰이는, 신분제사회에서 공경대부도 상민도 아닌 중간계층 축들의 생활세계를 범칭하는 말) 시인들 중 많은 이들은 요절하거나 객사하거나 더러 미치는 등 이조시대의 근엄하기만 했던 사대부문학의 근영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여항시인인 차차일은 한세상 떠돌며 술·시·노래를 즐기다가도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世生生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하며, ‘조선의 李賀’ 이연진(1740~66)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자기 원고를 모두 불태우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한탄했다고도 한다.

“윗밭에 메밀꽃 하얗고 / 밑논에 벼꽃은 노랗다. / 노랗고 또 하얀니 / 가을은 어찌나 너덕너지 / 아이들은 논 사이 참새를 쫓아다니고 / 아낙은 나무밑에서 광주리를 끌고 / 樂歲엔 오히려 고생 / 農家は 도리어 걱정 / 가을걷이 별일없어 / 백곡이 모두 등장한다. / 힘들여 부지런히 쪼으나 / 열에 아홉은 관가로 실려가는데 / 뜻밖에 아전들 설쳐대며 / 빼앗아가는 모습이 흡사 미친 듯. / 미친 아전 책망하기보단 / 내년엔 흉년들까 두려워한다.” 농민의 핍박상을 그려낸 이 시는 정약용보다도 앞선 시대의 것으로 여항시인들의 입지와 지향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듯 광기와 천재적 섬광과 한편으로는 건강한 소박함과 비판의식이 잘 어우러져 우리의 문학자산을 한결 풍요롭게 해주고 연암 박지원으로부터 이미 “실로 문장의 거룩함을 보게 될 지경”이란 평가를 받았던 여항문학은 그러나 실학과 동학이라는, 개인의 첨예한 의식과 집단주의의식이라는, 또는 언어와 종교라는 크고 격렬한 두 흐름 사이에 끼여 연구자들의

여항문학의 풍부한 세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조후기

회화사, 생활사, 문화사에 관계된

중요 자료들도 적지않게

포함되어 있는 이 총서의 간행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깊이있는 이해를 위해 학계에

의견교환과 공동연구를

제의하고 있다.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었다. 故구자군(前고대교수), 「조선평민문학사」(1948)에서 연구가 시작된 이래 여항문학은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학과 직접적인 계기로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금세기에 우리가 경험했고 현재도 겪고 있는 역사적인 갈등의 과정에서 중하층의 창조적 역량이 표출되어 있다”는 의의를 지니면서도 오랫동안 ‘암흑기’를 보냈고 80년대에 들어서야 조명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항문학의 전모 드러낸 자료집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완간된 「이조후기 여항문학총서」 전10책(여강출판사)은 여항문학 자체의 온전한 모습을 재발견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 또는 ‘근대문학의 기점기’ 문학의 한 변모양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여항문학연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17~18세기 우리나라의 中人, 京衛前을 비롯한 중간계층의 문학 예술집 총 88종 165책이 수록된 이 총서의 원본의 대부분은 미간행 필사본의 회귀본이고 총 10권 중 2권 분량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들. 개괄적인 해제 외에 수록된 각 문헌들에 대한 상세한 해제가 붙었으며, 여항인 천여명의 성명, 字, 號, 貫鄉, 생몰연대, 관직, 친인척관계, 수록문헌 등을 가나다 순서로 정리한 ‘여항인명록’도 첨부됐는데 “여항인들은 사회경제적 조건상 사대부들과는 다르게 필사본의 책을 남겼고 족보도 없어서 자료 수집과 해제작업·인명록작성에 힘이 많이 들었다”고. 9년이 걸린 이 총서의 편찬작업에 참



여한 연구자는 主編을 맡은 임형택(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를 비롯, 자료수집과 해제를 맡은 강명관(成大 강사), 이상진(成大 강사), 장원철(경상대교수), 임유경(梨大강사), 유흥준(영남대 교수) 등 6명.

이 총서의 의의는 그러나 자료의 집대성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보다는 기존의 여항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는 데 있는 듯이 보인다. 즉 기존의 시각은 여항문학을 “새로운 장르를 창안하거나 개척하였다기보다는 양반층의 상층문화에 접근·참여함으로써 자기상승을 꾀하였고, 아울러서 상층문화를 자기계층의 취향에 맞게 변용”시킨 것에 불과, “사대부문학의 아류”로 본다. 한 연구가는 “여항문학은 양반문화의 하층지향적인 확산현상”으로 규정했고 다른 한 연구가는 여항문학이 창조해 낸 형식으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설시조에 대해서도 “문학사상 처음으로 시에 있어서 리얼리티의 문체에 봉착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지만 시조 이외의 새로운 양식을 창조할 역량이 부족한 여항시인들이 “시조에 집착한 결과 그 자체 ‘형식의 파열’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시에서 소설로, 관념에서 구체성으로”의 역사적 이행 과정에서 사설시조의 의의는 크지만, 그 자체는 “寫眞의인 非文學”에 떨어졌다는 것.

이에 반해 이번 「총서」 간행작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여항문학자들이 비록 “자기들의 신분에서 가해진 사회적 모순을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결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오직 문예적인 추구로 파고 들어, 그 내용과 성격에 스스로 일정한 한계를 지어 놓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창조주체의 문학을 하는 의식”을 통해 보면 “사대부문학과 대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 “저물어가는 중세기의 황혼에서 아침을 가져오려는 노력의 발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전통에 대한 관심 촉구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여항문학’은 이조후기에 형성된 개념. 사대부들이 아직 지배적 힘과 전통적 문화를 유지시키고 있었지만, 그 일각에서는 실학사상이 비판적인 기풍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진경산수, 풍속화가 나타나는 등 당대의 예술인들이 “예속으로부터의 독립”과 “예술적 개성”의 방향으로 인도되던 시기의 한 문학 현상이다. 특히 여항인들은 훌륭한 작품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구비하고 있다는 性情論, 天機論, 性靈論 등의 문학예술론을 제시하면서 문학담당층의 확대를 정당화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문학을 정착시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이후 여항인 활동은 최남선, 장지연 등 개화기의 문화적 계몽주의로 이어져 보다 촘촘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

「조선 후기 여항문학총서」를 주편한 임형택 교수는 그러나 “여항문학의 발생지인 서울에 그 유적이 많이 있는데 무관심으로 인해 훼손되었”음을 지적, 이 총서의 발간에 거창한 의의를 부여하기보다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유적보호와 문화전통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피력한다.

— 김중식 기자